

전남 어촌지역 16개 지자체 뭉친다

완도군 등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10월 창립총회 추진 상호 연대·협력 공동발전 적극 모색...정부 사업 역량 결집도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뭉쳤다.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전남지역 어촌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을 중심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지역 16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가칭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는 10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남지역 어촌의 경우 한때 72만명에 달했던 어가 인구가 14만명으로 줄고 고령화에 후계자 부족 등의 문제가 맞물리며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지리적 특성을 공유한 지자체끼리 지역 공동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0%인 203개가 내륙지역에 위치, 상대적으로 어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최근 대두되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지자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공동 보조를 맞출 필요성도 협의회 창립 계기가 됐다.

협의회는 창립을 주도한 완도군을 비롯, 목포·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강흥·강진·해남·무안·영광·함평·영암·진도·신안 등 1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지자체들은 협의회를 통해 전남 어

촌지역 사·군 상호간 연대·협력을 도모하고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보 교환, 조사 연구, 교류·협력 증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협의회는 향후 전국을 순회하며 각종 심포지엄·포럼을 열고 정부의 어촌지역 정책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바다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국내 어촌지역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 바다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문제점 등 어촌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도 진행한다.

어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동 개발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사업·정책을 발굴해 공유하는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간다는 게 협의회 구상이다.

협의회는 참여자치단체들의 역량을 결집, 기존 어촌지역 정책 중 문제가 있는 사

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중앙정부의 어촌지역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과 주민 수렴 절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연간 200만원씩 분담해 사무국 운영비용과 협의회 활동경비를 지원한다.

이들은 오는 26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최종 참여 여부와 협의회 운영 규약을 의결하고 오는 10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기능을 보완, 어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들 간 연대 활동을 통해 어려운 어촌 상황을 이겨내고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1년 완도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국비 20억 등 사업비 100억 투입 해변공원·명사십리서 개최 세계 30개국 참여...국내 해조류 산업 선도국 도약 발판 기대

2021년 국제 해조류박람회가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오는 2021년 국제행사로 치러진다.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여 희망의 노래'라는 주제로 완도항 해변공원과 신지명사십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남도는 23일 "대외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2014년, 2017년에 이어 2021년 세 번째로 국제 해조류박람회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전남도, 완도군이 공동주최한다. 사업비 100억원 가운데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 등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40억원은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2021년 박람회에는 세계 30여 개국이 참여하며, 주행사장인 완도항 해변공원에 해조류 이해관, 인류공생관, 지구상생관, 미래변영관, 청정바다관, 바닷말체험장, 기업교류관이 들어서게 된다. 부행사장인 신지명사십리해변에는 해양치유

산업관, 요법센터, 체험공간 등이 선을 보이고, 해조류의 날이나 바다를 건너온 어업인들의 날 등 스페셜데이와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할 방침이다.

최근 건강식품인 해조류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랑스 주요일간지 르몽드, 호주 ABC방송, 국제해조류 건강협회장 수전 홀트 등이 전남 해조류 양식장을 찾아 취재하거나 점검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과 2017년 열린 해조류 박람회에는 각각 관람객 53만명 수출계 약 4800만 달러, 93만명 5230만 달러 등의 성과를 올렸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1년 열린 박람회는 우리나라가 해조류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해양수산부, 완도군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해남 새싹보리 재배면적 확대

군, (주)티젠과 업무협약 농가 안정적 생산·유통 기대

해남군은 지난 22일 ㈜티젠과 새싹보리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산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남군은 2019년산 유기농 새싹보리 6.7ha(2만평) 면적을 ㈜티젠과 계약재배할 계획이다.

새싹보리 재배면적은 오는 2020년 33.3ha(10만평), 2024년 133ha(40만평)로 확대한다.

군은 업무협약으로 보리수급 안정은 물론 새로운 소득작목인 새싹보리 재배확대를 통한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티젠은 업계 최대 종류의 차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능성 차전문 기업으로 해남 계곡면 일대에 차원을 운영, 녹차와 말차, 국화 등을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다.

새싹보리는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와 같은 영양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해독작용, 항산화 효과, 콜레스테롤 조절 등에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의 물놀이장은 계곡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지역 물놀이장 일제 개장...피서객 '발길'

두륜산 도립공원·동해리 체험장 등...워터슬라이드 운영 인기

해남지역 물놀이장이 일제히 개장, 피서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농촌체험마을로 유명한 북평면 동해리의 물놀이 체험장은 지난 6일 개장,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동해리 체험장은 두륜산 자락에서 흘러 내린 맑고 차가운 계곡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연간 1만여명이 찾는 여름 명소다. 마을에서 계절별 농사체험과 생태체험 등도 즐길 수 있고 동해물 감치, 갈숨 목은지, 저염 장아찌 등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해남공룡박물관도 다음달 18일까지 박물관 잔디광장에 대규모 워터 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을 운영한다.

공룡박물관 워터슬라이드는 30m 워터 슬라이드와 대형 에어풀장, 유아용 미니 슬라이드 등을 갖췄다.

주말이면 풍선마술, 샌드아트 마술 등 특별공연과 물풍선 게임, 물총싸움 페스티벌 등 야외체험도 풍성하다.

해남 두륜산 도립공원과 가학산 휴양림에서도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두륜산 도립공원 물놀이장은 상가단지의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다. 워터슬라이드를 비롯한 에어풀장 3개소가 무료로 운영된다. 계곡면 가학산 휴양림에서도 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사방댐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입장료는 무료다.

망골 송호해변과 오시야노 관광단지에서 열리는 여름축제에도 피서객을 위한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카카오커머스와 손잡고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로 확보

해남군이 ㈜카카오커머스와 손잡고 지역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로 확보에 나섰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본사에서 ㈜카카오커머스와 업무협약 (사진) 을 맺고 지역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촉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해남군과 카카오커머스는 지역특산물의 홍보, 유통, 판로개척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과 판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해남군은 카카오커머스의 플랫폼을 활용해 특스��어 기반 쇼핑하기, 2인 공동

구매 서비스 특딜 등을 통해 지역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실시한다.

해남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새로운 판로로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모바일 온라인 시장에서 해남군과 카카오커머스가 상생파트너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유통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해남 농수특산물이 카카오커머스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